

2026년
고3
3월 학평

2026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 만연사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 작품은 보통 양반들이 쓴 유배 가사라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엄청 사실적이고, 고생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잘 파악했네! ‘만연사’는 임금에 대한 충절을 관념적으로 노래한 일반적인 사대부의 유배 가사와 달리, 동남이나 등짐 지기 같은 육체노동의 고통과 궁핍한 생활상을 아주 구체적이고 평민적인 언어로 그렸다는 게 특징이야.



집주인이 조롱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에서 화자의 굴욕감이 확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모의고사 24번 문제의 3번 선지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건가요?

24번의 3번 선지는 ㉠이 ‘상반된 행위를 연달아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지. 하지만 본문을 보면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짚 새끼를 어찌 꼬리’라고 했어. 종이 노를 만들 줄 몰라서 짚 새끼도 못 꼬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행동은 아니란다.



아, 상반된 행위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둘 다 못 한다는 의미로 연결된 거군요! 그럼 23번 문제에서 정답인 5번 선지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사립문에 개가 짓으니 날 놓아줄 공문인가 기대하며 나갔다가 황아 파는 장수임을 확인하고,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바라보다가 고기 잡는 어선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장면을 보렴.



아하!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문답의 형식을 반복하면서,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희망과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 간의 괴리를 부각한 거군요?

정확해! **화자의 소망과 절망적인 현실의 대비**를 그런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낸 거지. 26번 문제도 그런 맥락을 잘 파악해야 풀 수 있단다. 5번 선지에서 '공명으로 든 병'을 고치려는 게 귀양살이의 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지만,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지.



네, 맞아요. **'활을 맞고 놀란 새'를 자신에 빗대면서, 관직(공명)에 다시 나아가는 것으로는 이 깊은 설움과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비관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이해했구나! 이처럼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상과 화자의 절망감을 사실적인 언어로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파악하고, 대구법이나 문답법 등 다양한 수사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2026년
고3
3월 학평

2026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 만연사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동냥을 하고 등짐을 져야 하는 비참한 현재 상황을 꿈이라 여기며 부정하고 싶어 함.)

뒤에서 당기는가 앞에서 미는가.

아무리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등짐을 지는 노동이 익숙하지 않아 겪는 육체적 고통을 표현함. **윗글의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내면의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벼슬아치 앞에 다녀왔나 땀이 등을 적시겠구나.(자신의 처지가 몹시 민망하고 창피하여 땀이 나는 모습을 과장하여 표현함.)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등짐을 지고 오는 화자의 모습을 보고 집주인이 비웃음.)

[양반도 할 수 없다. 동냥도 하시려고?

중인도 속절없다. 등짐도 지시려고?

밥벌이를 하셨으니 저녁밥을 많이 먹소.]([: 양반 신분으로 동냥을 하고 짐을 지는 화자의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는 집주인의 발화를 직접 인용함. / 대구법, 반복법, 도치법. **윗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타인의 조롱 섞인 발화를 직접 인용하여 화자가 겪는 냉대와 모멸감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어먹기 매번 하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 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망정 이 노릇은 못 하겠네.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 삼기나 하리라.

짚 한 단 적셔 놓고 신날부터 꼬아 보니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짚 새끼를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채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네.

할 수 없이 내어놓고 노 꼬기나 하리라.(‘신 삼기’와 ‘노 꼬기’를 연이어 시도하는 모습을 통해,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어떻게든 적응하려는 화자의 반복적인 노력을 보여 줌.)

긴 삼대 벗겨 내어 자리 노를 배워 꼬니

오동에 낙엽 지고 가을바람 소슬한데

오리는 가지런히 날고 물과 하늘 한 빛이구나.(가지런히 나는 오리와 한 빛을 이루는 물과 하늘의 모습을 통해, 근심 많은 마음을 노 꼬기에 부친 화자의 쓸쓸한 상태에 조응하는 자연의 풍광을 제시함. **시어 및 구절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오리는 가지런히 날고 물과 하늘 한 빛이구나”는 유배지에서 속세의 미련을 끊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은 화자의 기쁨을 자연물에 투영한 것이다.’와 같은 **옳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배지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기쁨을 투영한 것이 아니라, 근심 많은 화자의 쓸쓸한 내면 상태에 조응하는 풍광을 묘사한 것입니다.)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노 꼬기에 부쳤도다.

(중략)

내 아니 잊었는데 임이 설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눈서리 친다 한들 비와 이슬 아니 올까.(‘비와 이슬’은 임금의 은혜를 의미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황 개선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투영하는 대상임. 시어 및 구절에 대한 이해 문제에서 “눈서리 친다 한들 비와 이슬 아니 올까’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를 투영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울면서 떠난 임을 웃으며 만나고 싶네.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니 무엇으로 끄겠는가.
끄기도 어려운 불 오장의 불이로다.

하늘 물 얻으면 끌 수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 말이 없다.(하늘 물은 화자의 마음속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이지만, 알고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체념적 인식을 드러냄.)

[차라리 빨리 죽어 이 설움을 모르고 싶네.

포구 가에 퍼져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니며
적막한 중문 굳게 닫고 온갖 일 다 버리고

굶어 죽으려 함도 몇 번인지 아실른가.]([: 극심한 절망감과 서러움으로 인해 거듭 자결을 시도했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일각이 삼 년처럼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사립문에 개 짓으니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반겨 나가 물어보니 황아 파는 장수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석방 문서 가진 관선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잡는 어선이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문답의 형식을 반복하여,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망과 그러지 못하는 현실 간의 괴리를 부각함.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을 반복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루 열두 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는고.(유배지에서 벗어나 임과 재회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타남.)

설움 모여 병이 나니 온갖 증세 한꺼번에 나온다.

[배가 고파 허기증에 몸이 추워 냉증이요

잠 못 들어 현기증 나니 조갈증은 늘 앓는 병이로다.]([: 열거의 방식을 통해 귀양살이의 고생으로 인해 나타난 화자의 신체적 병증을 구체화하여 제시함. 덧붙의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화자의 심리적 고통이 신체적 질병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구체적인 증상과 함께 열거하며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술로 든 병이면 술을 먹어 고치며
임으로 든 병이면 임을 만나 고치니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하여 고치려고 한들

활을 맞고 놀란 새가 과녁에 앉으려 하겠는가.(활을 맞고 놀란 새를 자신에 빗대어, 관직에 다시 나아가 공명으로 든 병을 고치려는 것은 귀양살이로 인한 깊은 설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을 드러냄.)

- 안도환, 「만언사」

핵심 정리

- 갈래: 가사 (장편 가사, 유배 가사)
- 성격: 사실적, 애상적, 고백적
- 주제: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로 인한 고통과 신세 한탄
- 특징

- 유배 생활에서 겪은 노동의 고난과 궁핍한 생활상을 일상적 언어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함.
- 대구법, 설의법, 열거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참한 처지와 절망감을 강조함.
- 자신을 무시하는 타인의 조롱 섞인 발화를 직접 인용하여 유배객이 겪는 냉대와 모멸감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
-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상황 개선에 대한 소망과 좌절된 현실의 괴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으로 있던 안도환이 공무상의 비리를 저지른 죄로 추자도에 유배되어 지은 장편 가사이다. 일반적인 사대부들의 유배 가사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과 연군지정을 다소 관념적으로 노래한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철저히 현실적인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생활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양반의 신분임에도 낮은 육체노동인 동냥과 등짐 지기, 신 삼기, 노 끄기 등을 시도하며 겪는 화자의 육체적 고초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집주인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수모를 숨김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의 비참함이 극대화된다. 나아가 사면되어 임과 재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 소망이 번번이 오해와 착각 속에 좌절되는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보여주며, 그로 인한 뼈저린 체념과 육체적 병환의 고통을 솔직한 언어로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체험과 감정을 과장이나 허식 없이 평민적인 사실성으로 절절하게 그려 내었다는 점에서 유배 문학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의의를 지니는 작품이다.

서지정보

저자 정빛나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9740-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6.04.06.

가격 1,500원

